

경제

향토기업 행남자기 창립 70돌



15일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김유석(왼쪽에서 네번째) 사장 등 임원과 노조 간부들이 손을 잡고 있다. <행남자기 제공>

화합경영...70년 무분규

“트리니체 브랜드로 글로벌 톱3 도약”

목표에 기반을 둔 향토기업 ‘행남자기’가 16일 창립 70돌을 맞는다.

지역기업으로는 드물게 4대째 가업을 이으며 70년간 꾸준히 성장한 원동력은 뭘까. 김유석 사장은 “창업주인 증조부의 경영철학인 ‘협심동력(協心同力)에 있다’고 말했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의미의 ‘협심동력’은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가족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70년간 노사 무분규 기록을 세웠다. 또 직원 500여명 중 2대째 근무하는 인원이 28명이고, 3대째 근무하는 인원은 9명에 이른다.

행남자기는 고(故) 김창훈 창업주가 장남인 고 김준현 명예회장과 함께 1942년 목포에서 ‘행남사’를 창업한 것이 모태다. 현 김용주 회장과 김유석 사장까지 4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

행남자기는 1~2대를 거치는 동안 국내 최고 도자기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2대 회장이 원료 배합 기술과 소성 기술을 결합해 만들어 낸 프리미엄 도자기 ‘본차이나’는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

3대 김용주 회장은 마케팅과 디자인 시대로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한 뒤 1974년 평사원으로 행남자기에 입사해 수출 물꼬를 텄다.

유럽 명품 도자기의 맛대를 겪을 정도로 튼튼한 ‘스톤웨어(stone wear)’가 전략 무기였다. 검푸른 색상의 ‘산화자기’를 유백색으로 만든 ‘아이보리 차이나’와 색감을 고급화한 ‘스노 본차이나’ 등 프리미엄 제품도 선보였다. 1970~1980년대 내수 시장을 석권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김유석 사장 체제가 출범한 올해는 행남자기가 글로벌 톱3로 도약하는 원년이다. 이를 위해 김 사장은 자체 브랜드 육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수출을 시작한 독자 브랜드 ‘트리니체’는 남미를 시작으로 유럽·북미 등에 수출되며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다. 삼일일체라는 뜻의 트리니체는 휴과 불의 예술인 도자기에 행남자기 경영철학인 장인정신이 더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사장은 창립기념일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 본사와 각 사업장에서 기념식을 열어 100년을 넘어 300년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기념식에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글로벌 톱3’로 도약해야 한다”며 “도자기를 만드는 1280도의 불기둥과 같은 열정으로 생활문화를 선도하는 초우량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자”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호남기업 3곳중 2곳 “올 목표 달성 못했다” 대한상의 조사

호남지역 기업 3곳 중 2곳이 목표실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지방소재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지방기업의 경영여건과 예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4월까지 목표실적 달성 여부를 묻는 말에 58.7%의 기업이 ‘달성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목표를 달성했거나 초과했다’는 기업은 41.3%에 머물렀다.

특히 호남권이 64.7%로 목표실

적 미달 응답이 가장 많았다. 영남권(63.8%), 충청권(53.3%), 강원권(45.0%), 제주권(41.7%)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70.4%)이 가장 부진했고 건설(67.9%), 식료·제약(63.3%), 전기·전자(59.4%), 섬유·의류(58.3%), 자동차(49.2%) 순으로 저조했다.

호남권과 영남권의 실적 부진은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과 철강업 등의 침체 때문이고, 석유화학이 저조한 것은 고유가로 원재료가

격이 많이 오른 데다 중국 등의 수요 부진이 겹쳐진 탓이라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실적이 부진했다. 대기업의 48.4%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실적을 거둔 반면 중소기업의 목표미달성 비율은 62.4%에 이르렀다.

지방기업들의 체감경기도 좋지 않았다.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 68.6%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지방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시점으로는 52.5%의 기업이 ‘내

년’으로 예상했다. 이어 내후년(25.2%), 올해 4분기(12.0%), ‘올해 3분기’(10.3%) 등의 순이었다.

하반기 경기 불안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외적으로는 ‘유가와 원자재 상승’(60.3%), ‘유럽 재정위기 재발’(19.8%), ‘엔화약세’(10.7%), ‘중국 등의 신흥국 성장둔화’(7.9%), ‘북한의 도발’(1.3%) 등을 꼽았다. 대내적으로는 ‘내수판매 부진’(54.1%)과 ‘선기에 따른 정책표류’(14.9%) 등을 우려하는 기업이 많았다. /박정욱기자 jwpark@

한국 노동생산성 크게 높아져

연구개발비 비율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지식경제부가 발간한 ‘실물경제 동향 제2호’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제조업 분야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2년간 8.65%를 기록, 미국(0.18%)과 일본(-13.24%)보다 훨씬 높았다. 우리나라의 국가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경쟁국에 비해 아직 낮았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10년에는 3.7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4번째로 높았다.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세계 PCT 출

원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3.43%에 불과했지만 2011년 현재 5.75%로 크게 높아졌다.

한울도 2007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며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1년 2.4%(13위), 2005년 2.7%(11위)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3.1%로 수출 순위 세계 7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런 긍정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2005년 이후 투자 유출이 유입에 비해 현저히 높아진 후 그 차이가 지속적으로 커졌다. /연필뉴스



광주 중소기업인 대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는 15일 광주시 서구 센트럴호텔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이의준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안보승 중기중앙회 지역회장, 지역 중소기업인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광주 중소기업인 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수만(국무총리 표창) 성문당 대표이사 등 중소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38명을 수상했다. /나경우기자 mjna@kwangju.co.kr



기아차 모델들이 내외관을 고급화하고 편의·안전사양을 한층 강화한 ‘2013년형 쏘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2013년형 쏘울’ 출시

내·외관 업그레이드...안전성 대폭 강화

기아차 광주공장의 야심작 ‘쏘울’이 업그레이드됐다.

기아차는 내·외관을 고급스럽게 꾸미고 편의·안전사양을 한층 향상시킨 ‘2013년형 쏘울’을 1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2013년형 쏘울”은 18인치 화이트 휠과 화이트 아웃사이드 미러를 적용해 개성있는 측면 이미지를 구현했다. 또 라디에이터그릴 다크 크롬과 매뉴얼 에어컨 공조 다이얼에 크롬링을 적용해 내외관을 고급스럽게 만들었다.

스티어링 휠이 90도 이상 돌아간 상태에서 시동시 운전자에게 핸들을 정렬할 것을 알려주는 핸들 정렬 알림 기능을 적용하고, 지도 표시 칼라와 시인성 등이 개선된 네비게이션을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다. 뒷좌석 중앙석에 3점식 시트벨트와 타이어 공

기업 경보장치를 새로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새로 출시된 ‘쏘울 가솔린 1.6 프렌드’는 16인치 플러워 휠·알로이 휠·히터 시트·후방주차보조시스템·크루즈 컨트롤 등 고객이 선호하는 사양을 추가로 적용했다.

기아차의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개성있는 디자인, 다양한 안전사양과 편의사양 등으로 뛰어난 상품성을 인정받았다”며 “보다 많은 고객들이 2013년형 쏘울에 더 큰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판매가격은 가솔린 1.6 GDI 모델(자동차세 기준)의 경우 스타디움 1510만원 스포츠 1580만원 트러키 1700만원 스타일 1790만원 스프리미엄 1910만원이다. 디젤 1.6 모델은 스포츠 1840만원 트러키 1960만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경제단체 전기요금 현실화 요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8개 단체는 15일 전기요금 현실화를 정부에 제안했다.

그동안 산업계가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산입용만이 아닌 주택용, 일반용 등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들

현실화하고 ▲원가회수율의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요금 인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경제계는 전력산업 적자 해소를 위해 특정 용도만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모든 용도의 원가회수율을 100%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연필뉴스

코스피지수	1,898.96 (-14.77)
코스닥지수	480.50 (-8.03)
금리 (국고채 3년)	3.38%
원·달러 환율	1,154.10원 (+4.9)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태양광, 태양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전기세, 난방비걱정은 평생 끝!! 우리집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 쓴다!

신속 계획중인 고객분께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겨울엔 난방! 여름엔 에어컨! 한수용! 도 태양열로~

주택용 태양광 3kW, 태양열나바시스템, 태양열수시스템

설치전문업체가 국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효율의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할 절호의 기회를 드립니다.

주택용 태양광 한전 연계형 계통설비 (3kw이하~10kw이하)설치계통합니다. 최장 36개월 분할상환 가능

태양광발전(주택용) 설치 후 효과 (원 350kwh 생산 기준표)

기준청구요금(사용전력량 : kwh)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5만원(약 321kwh)일때	약 1,130원	48,870원
10만원(약 454kwh)일때	약 8,020원	92,270원
15만원(약 531kwh)일때	약 18,380원	131,810원
20만원(약 597kwh)일때	약 31,010원	169,510원
25만원(약 662kwh)일때	약 47,440원	202,640원
30만원(약 728kwh)일때	약 66,850원	233,150원

영업관리 사원모집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1588-4208 010-3624-5399 010-4764-0531

NAVER 강남산업 검색

법인등록번호 : 409-86-22826 (주)강남산업 KANGNAM INDUSTRY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